

# 바다가 보이는 이곳에서 아름다운 신안을 만나다

신안 첫 공립미술관 '저녁노을미술관'  
신안 풍광 담은 마이클 케나 사진전  
9월2일까지...박용규 작가 상설전도  
미술서적·도록 등 1000여권 북카페  
아프리카 조각 전시 분재공원도 눈길



세계적인 사진 작가 마이클 케나가 찍은 흑백 사진을 만날 수 있는 저녁노을미술관의 '신안 is trend, 신안 is answer' 전. (사진 왼쪽) 저녁노을미술관 북카페.

고요, 명상, 느낌, 평화, 위로...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의 흑백 사진 작품을 보고 있으면 자연스레 떠오르는 감성이다. 마치 한쪽의 수목회같은 고요한 풍경은 사람을 끌어당긴다. 전시장에서 만나는 사진 작품은 크지 않다. 가까이 다가가 한참을 바라보다 보면, 사진 속으로 빨려들어가며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다.

마이클 케나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신안 압해도 저녁노을미술관이다. 그는 지난 2011년과 이듬해 세계철을 신안에 머물며, 신안의 수많은 섬 곳곳을 영감에 담았다. 마이클 케나는 그림같은 풍경의 삼척 '술석' 사진으로도 유명하다. 이 작품은 지난 2014년 저작권 분쟁에 휘말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름도 아름다운 저녁노을미술관은 2014년 문을 열었다. 2층 규모의 미술관 건물 자체는 소박하지만 전사대교로 가는 길목인 송공산 기슭에 위치, 드넓은 '바다정원' 이 바로 앞에 펼쳐져 있다. 전사섬분재공원 안에 자리잡고 있어 미술관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계절 따라 피어나는 수많은 꽃과 나무, 분재를 만날 수 있는 건 또 다른 즐거움이다. 미술관은 신안 출신 박용규 화백이 소장품을 내놓으면서 지어졌고 이후 신안 출신 김환기의 작품 24점을 포함해 모두 800여점의 소장품을 갖추고 있다.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신안군은 '1도 1뮤지엄'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저녁노을미술관은 지난 5월 신안 지역 첫 공립미술관으로 등록했다. 지난 2일 개막해 오는 9월2일까지 계속되는 '섬과 바다, 그리고 마이클 케나' 전은 공립미술관 등록을 기념하는 첫 기획전이다.

전시는 '신안 is trend, 신안 is answer'를 주제로 미술관 1층에서 열리고 있다. 그의 영감에 담긴 비금도의 대동염전, 우이도 모래 언덕, 자은도의 김 양식장, 가거도의 독실산 숲, 압해도 송공리의 일몰, 추상화같은 갯벌 등 24점의 사진은 신비롭고 인상적이다. 전시 구성도 독특하다. 아담한 전시 공간 바닥에는 돛자리를 깔아 관람객들이 편

안하게 앉아 그의 사진집 '신안'을 펼쳐볼 수 있게 했다. 사진집에는 전시작과 함께 신안에서 촬영한 60여점의 사진이 실려 있다. 이날 전시장에서는 자유롭게 앉아서 사진집을 함께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이들이 보였다.

그가 신안에 머물며 촬영하는 과정을 담은 '섬은 살아 있다-신안에서 온 편지' 영상도 눈길을 끈다. 그는 "신안은 우연히 모퉁이를 돌 때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나는 기대감이 있듯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곳"이라고 말한다. 또 신안에서 만난 풍광은 오래된 동양화와 서예 작품을 보는 느낌, 자연이 빛어낸 위대한 명작이라고 말한다.

2층에서는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등을 역임한 우암 박용규 선생의 상설전이 열리고 있다. 한국화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풍경과 인물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전시 관람을 마치고 미술관 북카페에 들어섰다. 미술 서적, 도록 등 1000여권의 책이 꽂혀 있는 이곳 유리창 너머, 소나무 사이 사이로 다도해가 보인다. 커피와 치즈 케익을 앞에 두고 잠시 휴식을 취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문을 열고 야외 테라스로 나가니 사진 속에서 보았던 바다 풍경이 한 눈에 펼쳐졌다. 근사한 바다 정원이다. 시원한 비타버라도 어디선가 불어온다. 그네 의자에 앉아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본다. 당초 신안의 다른 섬도 둘러보려했지만 이곳에서, 게으르게 더 머무르기로 한다.

미술관이 분재공원 안에 있어 느릿느릿 공원을 산책하는 것도 좋다. 2009년 개장 후 약 90만명이 다녀간 명소다. 전사대교 개통 후에는 더욱 많은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13ha 규모의 공원엔 분재원, 야생화원, 수목원, 애기동백 군락지 등이 자리하고 있다. 금송, 해송 등 2000여 점의 다양한 명품 분재와 사시사철 다양한 꽃이 사람들을 반긴다. 지금은 수국과 붉은 장미가 한창이다. 아프리카 석조 문화의 진수인 쇼나조각 100여 점도 함께 전시돼 있는, 산책길 곳곳에서 만나는 다도해 풍경은 편안함을 준다.

저녁노을미술관은 이번 공립미술관 등록을 계기로 다양한 기획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굳은 또 매년 세계적인 사진가 그룹 매그넛 소속 작가를 초청해 신안 명소를 사진에 담아 전시할 계획도 갖고 있다.

분재공원 관람료(성인 3000원)를 내면 미술관까지 함께 둘러볼 수 있다. 개관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월요일 휴관), 문의 061-271-1145.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이상선 기자 slllee@kwangju.co.kr



아름다운 다도해가 바라다 보이는 신안 저녁노을미술관 전경. <신안군청 제공>

## 문화도시 정상화 시민연대 문화전당장 5년째 공석 비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정상화 시민연대(시민연대)는 8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 박태영 전당장 직무대리 선임과 관련 논평을 내고 문화전당 수장을 5년째 공석으로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한 전당장 '직무대리' 체제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라는 논평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핵심 기반 시설인 문화전당의 수장이 사실상 5년째 공석으로 방치되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연대는 "직무유기에 가까운 문화전당 운영 체계의 논의와 결정, 조성사업 추진 과정의 협치 실종 등 현 상황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보여준 일련의 행보는 지난 보수정권 10년 동안 축소·왜곡돼왔던 조성사업의 정상화와 문화전당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의 기대가 부질없는 일임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성사업이 문화를 통한 국가 균형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대한민국과 광주의 새로운 성장의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이 주체가 되고 정부·광주시·시민사회와의 협치를 통해 사업이 추진돼야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5월, 무등의 Fantasy' 광주현대무용단 11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바라보고 있었다. 기억하라, 오월정신! 꽃피워라 대동세상!"  
광주현대무용단이 11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5·18민주화운동 40주기 창작공연 콘텐츠 '5월, 무등의 Fantasy'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광주현대무용단이 지난해 11월 초연 이후 수정·보완을 거쳐 선보이는 무대로 5·18민주화운동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무용수와 관객이 80년 광주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기획했다.

특히 이번 작품은 현대무용의 퍼포먼스에 미디어 아티스트 박상화의 미디어아트 작품을 결합한 융·복합 공연으로 블루스크린 영상기법, 프로젝트

맵핑, 인터랙션 영상, 실루엣 애니메이션 기법 등을 사용했다.

작품은 '도시의 새벽', '만남', '무등판타지', '도원경', '꿈꾸는 미래' 등 5개 파트로 구성됐으며 현재를 사는 한 청년이 과거의 광주로 돌아가 당시 시민들이 만들고자 했던 대동세상을 경험하고, 희망적인 미래를 그리는 과정이 담겼다.

무등산 등 광주의 역사적 장소들이 배경으로 등장하며 5·18 당시 시민들이 만들고자 했던 대동세상을 주상절리모형 소품과 촛불 영상을 통해 구현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향한 강렬한 염원을 표현했다.

안무는 임지형(광주대 교수)이 맡았다. 공연에

는 김유진과 김민경이 주역 무용수로 출연하며, 김진아·홍유나·박성훈·문세현 등 17명의 무용수가 출연해 무대를 꾸민다.

이번 공연은 거리두기 좌석제로 운영, 190석 초대하며 13일 유튜브에서도 관람할 수 있다.

광주현대무용단은 1990년 조선대학교 공연예술 무용과 현대무용 전공자들로 창단한 단체로, 전국 무용제에서 대통령상을 3회 수상했다. 한국적 정서를 바탕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다양한 문화컨텐츠 개발에 앞장서 왔으며 새로운 출연어 모색을 통해 무용공연예술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 국제보청기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수상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앞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061) 752-9940